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요한 답을 찾아낸 선지자가 이사야이다. 좋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셨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는지가 사람들이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뒤에는 전 세계에 경제 공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한다. 교회들도 심각해질지 모른다. 교회의 경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진 사람은 이런 어려운 때에 온라인 예배라도 하고, 정말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도 예배의 축복이 원지도 모른 사람들이 많았을 것인데, 아예 예배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후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텅 비어버린 유럽교회처럼 우리도 가슴 아픈 날들을 봐야 할지 모른다. 재앙 중에 재앙이다. 이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중요한 답을 주신 것이다. 그것이 램넨트 언약이다.

1. 램넨트 언약이 뭐냐? 다 황폐해지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 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램넨트”라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 1)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절대 은혜의 선택이다. 그래서 “거룩한 씨”라고 한 것이다. 시대마다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롬11:5).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엡2:8-9). 어려울 때 일수록 정말 붙잡아야 할 사실이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다.
 - 2) 그렇게 은혜로 택함 받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절대 믿음의 축복이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했다(사10:20-21).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른 힘, 다른 응답,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다(사40:31).
 - 3)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쓰시느냐? 절대 계획 속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세상에 고통이 와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전하여(“남을 자, 남는 자”) 세상의 빛을 삼아 땅 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사49:6)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재난이 와도(마24:6-7),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는 말이 그 말이다(마24:14)
2.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절대적 세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집중하지 마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보라는 것이다(24시). 거기서 참된 행복, 참된 힘과 능력, 참된 응답이 계속될 것이다.
 - 1) 복음 집중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집중이다. 지금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묶여 버렸다. 창3장 이후에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겪고 당하는 문제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눅2:10-11).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약속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 ① 하나님 아들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왕으로 온다고 했다(사9:6). 우리가 가진 절대 권세이다. 이스라엘이 흑암 세력에 묶여 버린 것이다. 그들을 짓밟고 짓누르는 자들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창3의 아담의 타락, 창6장의 네피림시대, 창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처음부터 계속된 사건이다. 하나님 아들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이다(요일3:8). 개인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계속 왕 되신 이 그리스도 권세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계17:14, 계21:7)
 - ② 그 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사7:14). 우리의 절대 배경이다.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눅17:21).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사41:10)
 - ③ 그 분이 우리와 후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다(사44:3). 성령의 축복, 우리가 누릴 절대 능력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후대들이 정말 누려야 할 축복이 이것이다. 공부도 이 축복으로 하고, 직장 생활도 이 축복으로 하라. 성령 충만을 통해 누리는 영적 썩밋의 축복이다.
 - ④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는 그 분이 고난을 받아 해결한다는 것이다(사53:5). 우리가 받은 절대 은혜이다. 한 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롬8:1-2). 가다가 또 유혹 받고 넘어질 수 있다.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이다(요일1:9)
 - 2) 전도 집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의 회복이다.
 - ① 전도가 뭐냐? 흑암에 묶여 실패와 고통 속에 살던 내가 복음 깨닫고 일어나는 것이다(사60:1-7)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이상 내 안의 상처에, 세상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다. 내 안에 이미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임해 있다는 것이다. 내 정체성의 회복,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 ② 복음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이 회복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이상으로 내게로 돌아 온다는 것이다. 무리가 내게로 오고, 나를 떠난 후대들이 돌아오고,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까지 돌아온다고 했다.
 - ③ 왜 문제를 겪게 하셨냐? 내 문제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고,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자로 서라는 것이다. 다윗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도 그것이고(삼상22:2),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도 그것이고(눅22:31-32), 핍박자인 바울을 쓰신 이유도 그것이다(롬1:14, 행20:24) 초대 교회는 핍박 속에서 조용히 전도한 것이다. 마치 지금처럼 조용하게 퍼지는 전염병과 같다고 했다(행24:5) 움추려 있지 말라. 기도하면서 진짜 전도하라. 작은 전도하고, 소수에 집중하면서 전도해보라(사60:22).
 - 3) 선교 집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 회복이다.
 - ①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서 전 세계로 흩으신 이유가 이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축복이다(창12:1-3) 유대인들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늘 자기들 밖에 몰랐다. 그래서 세상으로 흩으신 것이다. 그들이 램넨트다.
 - ②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주신다(사55:4, 사61:6, 사62:10)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근과 재난 속에서도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 ③ 특히 다민족, TCK를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보라.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각자 자기 나라를 살릴 자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보라. 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결론-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보라. 전도자의 62가지 축복된 삶이 나올 것이다. 우리 각자는 램넨트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With). 우리의 가는 길은 램넨트의 여정이다(임마누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만남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될 것이다(원네스). 램넨트 언약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한다.